

증 및 출혈 소견을 동반하며 관찰되었고, 이는 종양 유형과 무관하였다. 종양 세포와 섞여 나오는 양성 간세포 및 담도상피 세포의 빈도를 살펴 보았을 때, 간세포는 선암의 88% (8예), 편평 세포암의 14% (1예), 신세포암 1예에서 관찰되어 전체적인 빈도는 높으나 종양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담도 상피세포는 보다 드물게 출현하였다. 종양내 결합조직형성을 시사하는 양성 기질 성분이 72% (16예)에서 관찰되었다. 간세포암의 특징의 하나인 종양 세포군 내의 혈관 내피 세포는 신세포암에서만 관찰되었고, 비정형성 간세포성 나핵은 모든 예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소세포암, 연골 육종, 유암, 악성 흑색종, 선양 낭성 상피암, 신세포암 등은 원발성 종양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진단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분화가 나쁜 경우의 선암과 편평 세포암은 간암과의 세포학적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이성 선암의 경우 대부분이 괴사성 배경하에 대장, 췌장, 총담수관, 유방 등 원발 병소에 따른 차이 없이 간세포암과는 다르게 길쭉한 핵과 세포질을 가지며 기저막위에 나란히 줄을 선 양상을 보임이 공통된 소견이었다. 편평 세포암은 선암보다 괴사성 배경의 빈도가 적고, 대개 결합조직형성에 의한 양성 기질 성분이 각질화된 세포들과 함께 종양 세포 집단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간종양의 흡인 세포학에서 분화가 나쁜 선암과 편평 세포암에서 전이된 경우가 간세포암과의 감별이 힘들며 이때 전이성 종양을 좀더 생각하게 하는 소견들은 양성 간세포의 혼합, 괴사성 배경, 양성 기질 성분의 존재, 내피 세포나 간세포성 비정형성 나핵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이었고, 그 외의 전이성 종양들은 원발성 종양의 특징들을 비교적 잘 보여줌을 알수 있었다.

## 9. 간의 전이성 암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108예에 대한 연구-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Tumors Metastatic to the Liver

- A study on 108 cases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영년, 이광길, 박찬일

간의 문맥이나 간동맥을 통하여, 또는 인접장기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의 직접적인 침습을 통하여 전이가 흔히 일어나는 장기이다. 최근 영상진단법의 진단으로 작은 크기의 병소까지도 발견 가능하게 되었으나, 약 10%의 전이성 암병변의 경우 고립성 결절로 발견되며, 양성병변, 원발성 간암 및 전이성 암병변 사이에 방사선 소견상의 유사성으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현미경적 진단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이성 암병변의 약 10~20%에서는 원발병소를 모르는 경우이며, 현미경적 진단을 통한 원발병소의 추정이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중요하다. 세침흡인술은 굵은 침을 이용한 생검후에 오는 합병증이 거의 없는 반면 간편용이하며 진단도 빠른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방법이나, 간의 전이성 병변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연자들은 1983년 1월부터 1991년 5월까지 8년 5개월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된 간세침흡인 생검중 전이성 암으로 진단된 108예에 대한 세침흡인 소견을 살펴보았다.

전이성 암의 남녀비는 1.2:1 이고 평균연령은 46.2세였다. 임상 또는 병리학적 검사상 밝혀진 원발병소는 위장관 계통이 가장 많았으며, 위 (23예), 췌장 (19예), 담낭 (15예), 결장 (15예), 폐대부 주위 암종 (per-

impullary cancer)(7 예), 폐 (4 예), 자궁경부 (2 예), 소장 난소, 신장, 부신이 각 1 예의 순이었으며 원발병소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19 예였다. 거의 대부분 남성에서의 발생빈도가 더 높았으나, 담낭에서는 여성에서의 발생빈도가 더 높았다.

세포학적 소견상 전이성 암의 거의 대부분 (105 예)이 암종 (carcinoma)였으며, 육종 (sarcoma)은 3 예에 불과하였다. 암종의 거의 대부분이 선암종이었으며, 소수에서 신경내분비 암종 (7 예), 편평상피 암종 (1 예), 신세포암종 (1 예), 부신피질 암종 (1 예), 미분화 암종 (1 예)이 관찰되었고, 육종은 평활근육종 (2 예)과 악성림프종 (1 예)이었다. 전이성 암종에서는 거의 대부분 괴사 및 염증성 도말 배경 소견을 보이며, 종양 세포의 간세포양 소견이나 내피세포로 피복된 소주형 세포배열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간세포 암종과의 감별이 가능하였으나, 전이성 선암과 담관 암종 사이의 감별은 세포학적 소견만으로는 매우 어려워, 임상 및 방사선과학적 소견이 도움이 되었다. 세포학적 소견만으로 원발병소를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결장, 신장 등과 같이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몇몇 장기로 제한되었으나, 세포학적 소견에 따른 보다 정확한 분류는 특히 임상 소견을 고려할때, 잠재성 원발병소의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0. 담즙 세포학 표본 362 건의 검색 Analytic Study of 362 Bile Cytologic Materials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고재수, 하창원, 명나혜, 조경자, 장자준

담도 폐쇄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 있는 환자에서 고식적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피적 경간 담즙 배액술 (PTBD)을 통한 최근 2년간의 담즙 세포학 표본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수는 104 명이었고 세포학 건수는 362 건이었다. 그 세포학적 진단을 보면 malignancy가 18 건, suspicious malignancy 27 건, atypical cell을 보인 경우가 45 건, negative result가 272 건이었다. 한 환자에서 검사가 반복된 경우가 많아서 최대 31 회까지 시행되었다.

104명의 환자 중 악성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확진되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분명한 경우가 36 예이었고 이 들에서 시행된 121 건의 검사에서 malignant cell이 검출된 경우는 26 건으로서 21%의 낮은 sensitivity를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체 환자의 24%인 25명에게 간흡충 (clonorchis sinensis)의 총란이 검출되었고, 이 중 15명은 악성 종양을 동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담도 폐쇄 환자 중 간흡충증 (clonorchiasis)의 유병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은 물론, 체담관 계통의 악성 종양과의 연관성도 시사한다고 여겨졌다.